

# 법학능력검증시험 기초법 예시문항 문제지 · 정답표

- 본 자료는 응시자의 학습과 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법학능력검증시험 기초법 예시문항입니다.
- 한국법학능력시험원 홈페이지([www.lct.or.kr](http://www.lct.or.kr))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복제, 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

KOREA INSTITUTE FOR LEGAL COMPETENCY EXAMINATION

기 초 법

문 1.

법의 개념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지만, 강제력의 뒷받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② 법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의지'와 '이성'이며, 이 중 '의지'는 법의 강제력을, '이성'은 법의 정당성을 상징한다.
- ③ 법은 항상 명확한 규범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 ④ 법철학에서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는 입장은 법의 '정당성' 측면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자연법론의 관점이다.
- ⑤ 법의 효력은 법규범의 내용이 정의로운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그 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회적 실효성'에만 근거한다.

문 2.

다음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법실증주의는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보며,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자연법론은 실정법 외에도 그 기초를 이루며 한계를 설정하는 도덕원리나 정의원리 역시 법에 포함된다고 본다.
- ③ "극도로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라드브루흐의 공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법론이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불법논변'의 핵심을 이룬다.
- ④ 법체계가 실정법규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원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원리논변'은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 ⑤ 법실증주의는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법의 필수적 요소로 보지만, 자연법론은 형식적 기준(제정성, 실효성 등)만을 통과하면 법으로서 자격을 갖춘다고 본다.

문 3.

오늘날 법의 개념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명령, 금지, 허용의 세 가지 표현 양상을 가진 사회규범이다.
- 나.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와는 무관하며, 오직 국가권력에 의한 제정 여부에만 달려있다.
- 다. 법은 개별 법규범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제정·적용·확인에 관한 절차를 갖춘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이룬다.
- 라. 법규범은 그 내용을 준수하게끔 하는 강제력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 나, 라
- ② 가, 다,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문 4.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법철학에서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은 크게 '불법논변'(the Unlawfulness Argument)과 '원리논변'(the Principle Argument)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논변은 "극도로 부당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라드브루흐의 공식에서 잘 나타난다. 원리논변은 실정법규와 명령만으로는 법체계가 구성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평성 원칙과 같은 일반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실증주의 법개념을 비판한다. 이러한 일반원리들은 주로 도덕규범에서 파생된 것들인데, 법체계의 합리적 작동을 위해서 또는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규범들이다.

위 지문에서 설명하는 '불법논변'이 비판하는 법실증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인가?

- ① 법은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형식적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법이다.
- ②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승인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 ③ 법은 법원과 행정기관이 내린 개별적 결정들의 총합이다.
- ④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⑤ 법은 사회적 사실로서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문 5.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법철학에서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은 크게 '불법논변'(the Unlawfulness Argument)과 '원리논변'(the Principle Argument)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논변은 "극도로 부당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라드브루흐의 공식에서 잘 나타난다. 원리논변은 실정법규와 명령만으로는 법체계가 구성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평성 원칙과 같은 일반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실증주의 법개념을 비판한다. 이러한 일반원리들은 주로 도덕규범에서 파생된 것들인데, 법체계의 합리적 작동을 위해서 또는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규범들이다.

위 지문의 '원리논변'에 근거할 때, 다음 중 법관이 재판에서 법으로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념
- ② 법관 개인의 종교적 신념
- ③ 사회적 다수의 여론
- ④ 민법 제1조의 '조리(條理)'
- ⑤ 사건에 대한 법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 법률

문 6.

존 롤스(J. Rawls)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 ② 시민불복종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기존 질서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 ③ 법률불복종 행위로 인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는 시민불복종의 양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속성이다.
- ④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법질서 전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⑤ 법률의 부당함이 경미하더라도 개인의 양심에 반한다면 언제든지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문 7.

영국의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벤담(J. Bentham)과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양자 모두 법의 본질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파악하였다.  
 나. 벤담은 '있는 법'을 다루는 설명적 법학과 '있어야 할 법'을 다루는 비평적 법학을 구분하였다.  
 다. 양자 모두 잉글랜드의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긍정하고 판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라. 오스틴은 법을 신법, 실정법, 실증적 도덕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법학의 연구 대상을 엄격한 의미의 법인 실정법에 국한하였다.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라

문 8.

법효력의 근거에 대한 여러 학설 중 정당성설(正當性說)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법의 구속력은 그 법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의 척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 ② 법의 효력은 법이념이나 초실정법적인 가치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대표적인 학자로는 자연법론자인 라드브루흐(G. Radbruch)와 벨첼(H. Welzel) 등이 있다.
- ④ 법의무가 도덕적 의무일 때만 타당하다면, 법효력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좌우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 ⑤ 법의 효력 근거를 법 외부가 아닌 법 자체의 단계 구조, 즉 상위 규범의 위임에서 찾으려는 켈젠(H. Kelsen)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문 9.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켈젠(H. Kelsen)과 하트(H. L. A. Hart)는 공통적으로 법체계의 효력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켈젠은 법단계설을 통해 모든 하위 규범의 효력이 상위 규범으로부터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의 효력은 논리적으로 전제되는 가상 규범인 '근본규범'(Grundnorm)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본규범은 "헌법을 준수하라"는 형식적 명제 이외에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하트는 오스틴(J. Austin)의 명령설을 비판하면서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으로 이해했다. 특히 2차 규칙에 속하는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은 특정한 규칙이 해당 법체계 내에서 유효한 법규범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승인규칙은 켈젠의 근본규범과 달리 논리적 가정이 아니라, 법관과 공무원들이 실제로 법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사실, 즉 일종의 사회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위 지문에 나타난 켈젠(H. Kelsen)의 '근본규범'(Grundno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질서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② 그 자체로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규범이다.
- ③ 법규범의 최종적인 효력 근거가 된다.
- ④ 법학적 인식을 위한 가상적, 논리적 전제이다.
- ⑤ 현실적으로 제정된 규범이 아니라 사고 속에서 전제된 규범이다.

문 10.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켈젠(H. Kelsen)과 하트(H. L. A. Hart)는 공통적으로 법체계의 효력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켈젠은 법단계설을 통해 모든 하위 규범의 효력이 상위 규범으로부터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의 효력은 논리적으로 전제되는 가상 규범인 '근본규범'(Grundnorm)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본규범은 "헌법을 준수하라"는 형식적 명제 이외에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하트는 오스틴(J. Austin)의 명령설을 비판하면서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으로 이해했다. 특히 2차 규칙에 속하는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은 특정한 규칙이 해당 법체계 내에서 유효한 법규범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승인규칙은 켈젠의 근본규범과 달리 논리적 가정이 아니라, 법관과 공무원들이 실제로 법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사실, 즉 일종의 사회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위 지문에 근거할 때, 하트(H. L. A. Hart)의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① 헌법 조문을 분석한다.
- ②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③ 저명한 법철학자들의 학설을 비교한다.
- ④ 법관과 공무원들이 재판과 행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을 관찰한다.
- 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살펴본다.

문 11.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켈젠(H. Kelsen)과 하트(H. L. A. Hart)는 공통적으로 법체계의 효력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켈젠은 법단계설을 통해 모든 하위 규범의 효력이 상위 규범으로부터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의 효력은 논리적으로 전제되는 가상 규범인 '근본규범'(Grundnorm)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본규범은 "헌법을 준수하라"는 형식적 명제 이외에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하트는 오스틴(J. Austin)의 명령설을 비판하면서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으로 이해했다. 특히 2차 규칙에 속하는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은 특정한 규칙이 해당 법체계 내에서 유효한 법규범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승인규칙은 켈젠의 근본규범과 달리 논리적 가정이 아니라, 법관과 공무원들이 실제로 법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사실, 즉 일종의 사회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위 지문을 바탕으로 켈젠(H. Kelsen)의 '근본규범'(Grundnorm)과 하트(H. L. A. Hart)의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본규범은 경험적 사실이지만, 승인규칙은 논리적 가정이다.
- ② 근본규범은 법체계의 '유효성'을, 승인규칙은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 ③ 둘 다 법체계의 최종적인 효력 근거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근본규범은 '당위'의 영역에, 승인규칙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
- ④ 근본규범은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승인규칙은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한다.
- ⑤ 둘 다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 관념을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12.

현대 법실증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체계는 본질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결된 논리 체계이므로, 법관은 주어진 법규로부터 기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② 법학의 과제는 '있는 법'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지, '있어야 할 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 ③ 법은 인간의 명령이며,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 ④ 법의 효력은 초월적 가치가 아니라 합법성이나 사회적 실효성과 같은 현실적 요소에 찾아야 한다.
- 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념성을 소홀히 하여 현실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3.

하트(H. L. A. Hart)가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으로 파악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② 원시 사회의 단순한 규범 체계가 갖는 정태성, 비효율성, 불확실성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 ③ 모든 법규범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 ④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 ⑤ 법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 14.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극도로 부정의한 나치 법률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② 법원의 판결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원리에도 근거해야 한다.
- ③ 법은 그 자체로 '최소한의 실천적 정당성'을 요구하며, 이조차 갖추지 못한 규범은 법이 아니다.
- ④ 법의 효력은 법규범이 실제로 사회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⑤ 법은 제정될 때부터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문 15.

다음 중 법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법을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그 집행이 보장되는 규범으로 본다.
- ②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 문언의 의미와 논리적 체계성을 중시한다.
- ③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한 법적 가치로 삼는다.
- ④ 정의의 일반원칙들을 법해석에서 적용할 법적 의무가 법관에게 있다고 본다.
- ⑤ 법의 효력은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올바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문 16.

토마스 아퀴나스(Th. Aquinas)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영구법(lex aeterna)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의 이성으로서, 인간은 그 전체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 ② 자연법(lex naturalis)은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이 영구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 ③ 인정법(lex humana)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다.
- ④ 신정법(lex divina)은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신이 계시를 통해 직접 부여한 법으로, 십계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⑤ 인정법이 자연법에 위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단 제정된 이상 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시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문 17.

풀러(L. Fuller)가 주장한 ‘법의 내적 도덕성(internal morality of law)’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은 개별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 규칙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 ② 제정된 법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되어야 한다.
- ③ 법은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와 공동선에 부합해야 한다.
- ④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⑤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상호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문 18.

법규범(rule)과 법원리(principle)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법원리는 입법을 통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법규범은 판례나 관습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 나. 법규범 간의 충돌은 상위법 우선 원칙이나 신법 우선 원칙 등으로 하나의 규범을 무효화시켜 해결하지만, 법원리 간의 충돌은 사안에 따라 어느 한 원리가 후퇴할 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다. 법규범은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만, 법원리는 ‘정의’, ‘공평’ 등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 라. 법규범은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법원리는 다른 원리와 비교형량하여 적용된다.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문 19.

권리의 근거에 대한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설은 권리의 핵심을 타인의 의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리자의 선택 능력, 즉 ‘작은 주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찾는다.
- ② 이익설은 권리의 핵심을 권리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확보해 주는 법의 보호 기능에서 찾는다.
- ③ 의사설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자유주의 이념과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익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식물인간의 권리를 설명하는 데 의사설보다 유리하다.
- ⑤ 의사설은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이익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권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본다.

문 20.

호펠드(W. N. Hohfeld)의 권리 분석틀에 따라, 권리의 법적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질 때, 乙은 甲에게 돈을 갚을 ‘자유’를 가진다.
- ②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고, 매수인 丙은 ‘권리보유자 처분 아래 놓인 상태’(liability)에 있다.
- ③ 모든 국민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이 나의 표현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 甲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정부가 甲에 대해 선거권 행사를 금지할 ‘형성권’을 갖기 때문이다.
-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때, 이웃 乙은 甲의 건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이는 乙의 ‘할 수 없는(disability)’ 상태를 의미한다.

문 21.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워킨(R. Dworkin)은 법실증주의, 특히 하트의 법이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법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법관이 재판에서 적용하는 규범이 ‘규칙’(rule)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원리’(principle)라는 다른 종류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률에 흠결이 있거나 기존 규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도 정답이 있으며, 법관은 이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법관의 역할은 마치 연작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기존 법체계의 역사와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동시에, 그것을 최선의 도덕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해석 과정을 그는 ‘정합성으로서의 법(law as integrity)’이라고 부른다.

위 지문에 나타난 드워킨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법적 문제에는 법체계에 내재하는 도덕적 원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답이 존재한다.
- ② 법의 효력은 그 법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③ 법관은 법률에 흠결이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새로운 법을 창조할 재량을 가진다.
- ④ 법은 주권자가 제정한 명시적인 규칙들의 총합이며, 그 외의 도덕적 원리는 법이 아니다.
- ⑤ 법해석은 과거 입법자의 의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에 그쳐야 한다.

문 22.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드워킨(R. Dworkin)은 법실증주의, 특히 하트의 법이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법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법관이 재판에서 적용하는 규범이 '규칙'(rule)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원리'(principle)라는 다른 종류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률에 흠결이 있거나 기존 규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도 정답이 있으며, 법관은 이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법관의 역할은 마치 연작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기존 법체계의 역사와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동시에, 그것을 최선의 도덕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해석 과정을 그는 '정합성으로서의 법(law as integrity)'이라고 부른다.

위 지문에서 묘사된 드워킨의 이상적인 법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존의 축적된 법체계 전체를 꿰뚫어 보는 초인적인 지성과 능력을 가졌다.
- ② 단지 명문화된 법규뿐만 아니라 법체계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 원리와 요청들을 비교형량하여 정답을 찾는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정합성에 맞게 도덕적 원리를 구현하도록 판결한다.
- ④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판결한다.
- ⑤ 정합성에 맞는 법발견을 통해 전체 법질서를 성장시킨다.

문 23.

법해석의 전통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언적 해석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다.
- ② 체계적 해석은 해당 법규범이 법체계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 ③ 역사적 해석은 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나 목적을 탐구하여 그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다.
- ④ 목적론적 해석은 현재 시점에서 법규범이 추구해야 할 객관적인 목적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 ⑤ 전통적으로 이 해석 방법들 사이에는 문언적 해석 → 체계적 해석 → 목적론적 해석 → 역사적 해석 순의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문 24.

다음 중 자연법론과 거리가 가장 먼 학자는?

- ① 벤담 (J. Bentham)
- ② 피니스 (J. Finnis)
- ③ 드워킨 (R. Dworkin)
- ④ 아퀴나스 (Th. Aquinas)
- ⑤ 풀러 (L. Fuller)

문 25.

법실증주의가 자연법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자연법론적 명제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심히 부당하지만 법은 법이다. 다만 도덕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 ② 무엇이 '극도로 부정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정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③ 어느 정도 발달한 법체계라면 법체계의 합리적인 작동이나 법적 판단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규범이 있다.
- ④ 부정의한 법체계가 붕괴된 이후, 그 문제들은 소급입법을 통해 충분히 청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연법 개념을 원용하여 법의 개념 자체를 흔들 필요는 없다.
- ⑤ 자연법론은 법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정의감에 호소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문 26.

법적 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의 출발점이 된다.
- ②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법적 사실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 ③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④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반드시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사회적 다툼이 있을 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선 권위 있는 결정이 내려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문 27.

도덕의 법적 강행(legal enforcement of morality)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밀(J. S. Mill)의 '해악의 원칙'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사회의 지배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② 데블린(P. Devlin) 판사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공유된 도덕'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를 형법을 통해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③ 하트(H. L. A. Hart)는 데블린의 주장에 동의하며, 법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후견적 간섭주의'를 옹호했다.
- ④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므로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⑤ 완전주의(perfectionism) 입장은 국가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들 중 특정 견해를 장려할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입법을 통해 정당한 공공도덕을 보호하면 도덕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문 28.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는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명예, 관직, 재화 등 공공재의 분배에서 적용되는 분배적 정의이다. 이는 공적이나 지위와 같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다른 몫을 비례적으로 나누어 주는 '기하학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사인 간의 거래 관계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시정에서 적용되는 시정적 정의(또는 평균적 정의)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가치와 무관하게 손실과 이득을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산술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호혜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거래 규범을 다뤘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중세 스콜라철학을 거치면서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또는 평균적 정의)로 이해되었다. 시정적 정의와 호혜성이 교환적 정의로 합쳐진 것이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위 지문의 내용에 근거할 때, 분배적 정의가 가장 중심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은?

- 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는 경우
- ②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③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 ④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
- ⑤ 절도범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문 29.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는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명예, 관직, 재화 등 공공재의 분배에서 적용되는 분배적 정의이다. 이는 공적이나 지위와 같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다른 몫을 비례적으로 나누어 주는 '기하학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사인 간의 거래 관계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시정에서 적용되는 시정적 정의(또는 평균적 정의)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가치와 무관하게 손실과 이득을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산술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호혜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거래 규범을 다뤘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중세 스콜라철학을 거치면서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또는 평균적 정의)로 이해되었다. 시정적 정의와 호혜성이 교환적 정의로 합쳐진 것이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위 지문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의의 핵심 원리를 '평등'으로 파악하였다.
- ②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른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 ③ 평균적 정의는 당사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산술적 평등을 추구한다.
- ④ 현대 사회의 누진세 제도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점에서 평균적 정의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는 시정적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문 30.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가장 거리가 먼 법 원칙이나 제도는?

- 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② 시효 제도
- ③ 대법원의 판례 변경
- ④ 법률 명확성의 원칙
- ⑤ 행정소송상 사정판결

문 31.

법치주의(rule of law)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치주의의 핵심은 통치권력이 자의가 아닌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 ②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만 여기는 방식으로,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어 진정한 법치주의와 구별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요건만을 강조하므로, 그 내용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 정의나 인권과 같은 실질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법 제도만으로 충분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의식이나 참여(시민 덕목)는 부차적인 요소이다.

문 32.

'규범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입법자 등 법률 전문가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사고방식이다.
- ② 객관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 실천적 의지를 포함한다.
- ③ 주관적 사고의 자의성을 벗어나 공공성을 지향한다.
- ④ 우리 사회의 주권을 높임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⑤ 현재 뒤틀려 있는 인간관계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문 33.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원리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법은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장래의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인 시민 다수의 참여보다 법전문가나 정치인의 결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 범죄 예방 및 처벌 기관의 재량은 사회 안전과 정의 실현을 위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초법적인 활동은 용인될 수 있다.  
 라.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다  
 ④ 가, 라  
 ⑤ 나, 다

문 34.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인식이다. 둘째는 객관적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객관적 인식이다. 과학적 인식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인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은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식 주체의 준거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주권자적 인식이다. 이는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원천적 규범에 대한 의지로 구성되며, 참된 헌법 수호를 위한 진보적 헌법 인식을 뜻한다. 이러한 인식의 3단계 구조는 법의 세계에서 주관적 법, 객관적 법, 주권자적 법의 세 단계로 나타난다.

위 지문에 근거할 때, '객관적 법' 단계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의 존재가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  
 ② 서구에서 '법이 지배하는 시기'는 주로 이 단계의 법을 의미한다.  
 ③ 법이 아닌 자의가 지배하는 단계로, 법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  
 ④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완전히 실현하는 단계이다.  
 ⑤ 법질서의 근본 원리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존 질서를 변혁하고자 한다.

문 35.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인식이다. 둘째는 객관적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객관적 인식이다. 과학적 인식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인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은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식 주체의 준거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주권자적 인식이다. 이는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원천적 규범에 대한 의지로 구성되며, 참된 헌법 수호를 위한 진보적 헌법 인식을 뜻한다. 이러한 인식의 3단계 구조는 법의 세계에서 주관적 법, 객관적 법, 주권자적 법의 세 단계로 나타난다.

위 지문의 관점에서 '규범운동'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① 기존의 실정법 체계를 어떠한 비판 없이 수호하는 것  
 ② 오직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법질서를 운영하는 것  
 ③ 모든 법적 문제를 개인의 주관적 양심에 따라 해결하는 것  
 ④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권자적 인식을 바탕으로 법질서 형성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것  
 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판단만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

문 36.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으로 어울리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국가 정제』에서 지성의 통치를 주장하였다.  
 ② 국가를 신분제적 원리에 따라 설계하였다.  
 ③ 부패방지를 위해 통치계급에게 공산제도를 부과하였다.  
 ④ 스파르타의 교육제도를 참조하여 철인왕을 구상하였다.  
 ⑤ 소크라테스 처형 이후에도 통치 실험에 참여하였다.

문 37.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시민의 자유는 변영을 가져온다.  
 ② 귀족의 지배욕을 인민의 참여로 통제한다.  
 ③ 종교는 정치에 유용하다.  
 ④ 갈등과 반목은 국가에 유해하다.  
 ⑤ 국가가 번영하려면 법과 제도의 덕이 갖추어져야 한다.

문 38.

자연법론에 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트의 자연법은 이성에 입각한 자연법이다.  
 ② 스탬플러에 따르면 자연법은 가변적 내용을 가질 뿐이다.  
 ③ 제1차 세계대전 후 하인리히 뢰넨은 『자연법의 영원회귀』를 제창하였다.  
 ④ 라트브루흐의 법률적 불법은 신학적 토대 위에서 제시되었다.  
 ⑤ 풀러는 법의 내재적 원리를 제시하며 절차적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문 39.

마이클 월처의 정의론에 대한 서술로서 부적절한 것은?

- ① 보편적 정의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사회는 절대적으로 고립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 ③ 사회의 도덕규범은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정의가 문제되는 영역별로 정의의 기준은 달라진다.
- ⑤ 분배적 정의는 복합적 평등 개념과 결부되어야 한다.

문 40.

고대의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프로타고라스 (Protagoras) - 인간은 모든 사물의 척도이다.
- ② 칼리클레스 (Kalikles) - 자연에 따르면 이방인든 그리스인이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③ 트라시마코스 (Thrasymachos)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④ 제논 (Zenon) - 인간은 이성의 명령에 좇아 자연법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⑤ 세네카 (Seneca) -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문 41.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오캄 (W. Ockham) - 신은 절도와 같은 악행도 명할 수 있으며 신이 그렇게 의욕한다면 그 행동은 선하다.
- ② 그로티우스 (H. Grotius) -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 ③ 홉스 (T. Hobbes) - 군주(rex)가 있어야 법(lex)가 시작된다.
- ④ 루소 (J. J. Rousseau) -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 ⑤ 벤담 (J. Benda) - 법은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그 위반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문 42.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법사상가는?

- 법관이 법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삼단논법보다는 당대의 시대적 요구, 지배적인 도덕관 및 정치관, 공공정책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직관 그리고 법관들의 선입견이 더 큰 역할을 한다.
- 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예측가능한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악인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 ① 예링 (R. v. Jhering)
- ② 사비니 (F. C. v. Savigny)
- ③ 메인 (H. S. Maine)
- ④ 홈즈 (O. W. Holmes Jr.)
- ⑤ 스펜서 (H. Spencer)

문 4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의는 모든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화가 그 특수한 영역 속에서 획득한 사회적 의미에 일치하는 기준에 의해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 의료와 같은 복지는 필요에 의해, 처벌과 명예는 공과에 의해, 교육은 재능에 의해, 부는 자유교환에 의해, 정치권력은 논쟁과 투표에 의해 분배됨으로써 각각의 영역들이 자신의 가치를 전유하면서도 상호발전적 작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

- ① 노직 (R. Nozick)
- ② 매킨타이어 (A. MacIntyre)
- ③ 왈저 (M. Walzer)
- ④ 샌들 (M. Sandel)
- ⑤ 테일러 (C. Taylor)

문 44.

2025년도 제1회

다음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주요 관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시오.

- 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② 기독교도도 이교도 국왕에 복종해야 한다.
- ③ 중간목적으로 담당하는 자는 궁극목적으로 담당하는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 ④ 인간의 악덕을 모두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 ⑤ 자연법의 최고원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문 45.

2025년도 제1회

법개념 논쟁에서 배제적 법률 실증주의에 해당하는 서술로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법은 사회의 오랜 관습의 산물이다.
- ② 내용 때문에 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 ③ 법과 도덕은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된다.
- ④ 자연적 정의 관념이 법과정에 작동한다.
- 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문 46.

2025년도 제1회

도덕의 강행 문제에 대한 하트(Hart)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부도덕이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 ② 사회의 관습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 ③ 원칙적으로 밀(Mill)과 스티븐(Stephen)의 논쟁에서 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 ⑤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 47. 2025년도 제1회

법치주의에 대한 원리적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법치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의미한다.
-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에 가깝다.
-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리와 정의의 문제를 고려한다.
- ④ 권위적으로 창조된 법 아래서도 시민은 자유를 구가한다.
- ⑤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 확보될 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

문 48. 2025년도 제1회

법해석에 관한 서술로서 부적절한 것은?

- ① 주관적인 해석은 입법자의 영혼을 파악하는 시도이다.
- ②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은 객관적 법리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 ③ 자유법론은 법관을 법의 자동포섭장치로 상정한다.
- ④ 법률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은 시선의 왕래를 통한 적용이다.
- ⑤ 법관은 법의 적용자를 넘어 지속적인 형성자이다.

문 49. 2025년도 제1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가는 인간 본성의 산물이다.
- ② 국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윤리적 덕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 ③ 국가적 차원의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만 최선을 다하고 다른 계급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을 때 실현된다.
- ④ 법은 실천지와 이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규칙이다.
- ⑤ 형평은 법의 일반성을 보정하는 원리이다.

문 50. 2025년도 제1회

칸트(I. Kant)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법이란 자유의 일반법칙 아래에서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 ② 법은 행위 자체가 규범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도 도덕적 의무감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 ③ 법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 ④ 법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방해로 저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 ⑤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한다.

문 51. 2025년도 제1회

켈젠(H. Kelsen)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어떤 것이 존재한다'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가 도출될 수 없다.
- ㄴ. 실정법질서가 실효적인 한에서는 근본규범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규범의 내용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의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ㄷ. 법의 효력은 상위규범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 ㄹ. 법이념에는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다.
- ㅁ. 권한부여적 규칙은 승인의 규칙, 재판의 규칙, 변경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52. 2025년도 제1회

법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사회학적 효력이론 - 법은 그 자체 당위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 ② 법률적 효력이론 - 규범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정당성설 - 법이 실정법 배후에 있는 이념적, 도덕적 원리에 어긋난다면 그 효력은 부인된다.
- ④ 실력설 - 법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해 명령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 ⑤ 일반적 승인설 - 다수 수범자가 승인 내지 합의를 한다면, 그 법은 효력이 있다.

문 53. 2025년도 제1회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J. Rawls)의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시민불복종은 공통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② 시민불복종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정치적 호소를 다한 이후에 최종적인 대책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시민불복종은 예상되는 체포나 처벌을 감수하는 양심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 ④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부여하는 차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아닌 정치적 과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다수자가 정의에 반하여 소수자를 억압한다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복종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교통차단, 공공기관의 업무폐쇄와 같은 '강요의 전략'도 인정될 수 있다.

문 54.

로마법상 학설대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프로쿨루스 학파와 사비누스 학파의 대립이 있었다.
- ② 사비누스 학파는 신의성실의 원리를 중시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법학을 계승하였다.
- ③ 공물에 대해 초기 사비누스 학파는 재료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초기 프로쿨루스 학파는 가공자의 소유를 인정했다.
- ④ 사비누스 학파는 물건의 교환에는 매매소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⑤ 두 학파의 학설대립은 고전시대 중기 이후 완화되었다.

문 55.

중세 이후 로마법 연구의 학파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주해학파  
 ㄴ. 주석학파  
 ㄷ. 역사법학파  
 ㄹ. 전아학파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ㄷ → ㄹ → ㄴ → ㄱ
- ④ ㄹ → ㄷ → ㄴ → ㄱ
- ⑤ ㄱ → ㄹ → ㄴ → ㄷ

문 56.

로마법의 '사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persona)'이라는 개념은 본래 극장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가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을 어원으로 한다.
- ② 고전전(古典前) 자연법 시대에는 인간을 '머리(caput)'로 표현했으며, 이는 법에서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③ 고전법(古典法)의 속성이론(Attributenlehre)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육체(corpus)에 대한 지배와 판단이 가능한 의식(animus)을 가지며, 이는 노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두격감소(capitis deminutio)'는 사람의 법적 지위 상실을 의미하며, 최대두격감소(maxima), 중간두격감소(media), 최소두격감소(minima) 순으로 지위 상실의 정도가 크다.
- ⑤ 법인(法人)의 경우, 고전 학자들은 '사람 대신 기능하다(personae vice fungi)'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인격(persona)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 57.

로마법상 노예제(servitu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2표법 시대의 노예(servi)는 가부장권에 복속하는 자식(가자, 家子)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

- ② 고전전(古典前) 법학에서는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 '보호한다(servare)'는 것에서 노예(servus)의 어원을 찾았다.
- ③ 고전법(古典法)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는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으므로 주인의 소유권 역시 즉시 소멸한다.
- ④ 세르비우스(Servius)에 따르면, 노예는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실라누스 원로원 의결(Senatusconsultum Silanianum)은 주인을 학대한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인도주의적 법률이다.

문 58.

다음은 로마의 혼인(matrimonium)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귀족을 위한 혼인 형태였던 공찬식 혼인(confarreatio)은 본래 이혼이 불가능했으나, 후대에 혼인 해소 행위인 디파레아티오(diffarreatio)가 만들어졌다.
- 나. 12표법상 부권(manus)의 사용취득(usucapio)을 막기 위해 인정된 삼야권(trinoctium)은, 아내가 친정집에서 연속으로 3일 밤을 보내야 성립했다.
- 다. 고전전(古典前) 법학은 시민법(ius civile)의 영역에서 공매식 혼인(coemptio)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를 매수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
- 라. 고전법(古典法)에서는 "합의가 혼인을 만든다(Consensus facit nuptias)"는 원칙이 확립되어, 부부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혼인과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 ① 가, 나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가, 나, 라
- ⑤ 나, 다, 라

문 59.

로마법상 친자관계와 가부권(patria potest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마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한 그의 나이나 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권력 아래에 있었다.
- ② 아버지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사여탈권(ius vitae ac necis)을 가졌으며, 이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특징을 반영한다.
- ③ 자식이 가부권에서 면제(emancipatio)되기 위해서는 12표법 규정에 따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에 걸쳐 양도하는 복잡한 법률행위가 필요했다.
- ④ 부권면제(emancipatio)된 자식은 가부권에서 벗어나는 대신, 법정상속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 ⑤ 자녀나 노예가 관리하는 특유재산(peculium)은 형식적으로는 가부의 소유였으나, 그 재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가부는 무한책임을 졌다.

문 60.

로마법상 후견(tutela) 및 보좌(cura)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견(tutela)은 성숙자(成熟者)를, 보좌(cura)는 미성숙자(未成熟者)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 ② 12표법에 따르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최근친(最近親) 남자 법정상속인 또는 씨족(gens)의 대표자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③ 로마법에서 여성에 대한 후견(tutela mulierum)은 고전법 시대까지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 ④ 25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는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보좌인(curator)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 ⑤ 로마법에서는 오늘날의 직접대리 제도가 일찍부터 발전하여, 대리인(procurator)의 행위 효과는 즉시 본인에게 귀속되었다.

문 61.

로마의 유언(testamentum)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2표법상 유언은 본래 쿠리아 민회(comitia curiata) 앞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법률행위였으며, 주로 가내상속인이 없는 시민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 ② 12표법은 “그가 유언으로 그의 재산(pecunia)과 보호권(tutela)에 대해 처분한(legassit) 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어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 ③ 동형유언(testamentum per aes et libram)은 유언자가 신뢰하는 제3자(유산매수인, familiae emptor)에게 자신의 재산을 악취행위(mancipatio) 형식으로 양도하고, 그 사후에 지정된 사람에게 분배하도록 위임하는 신탁(fiducia)의 성격을 가졌다.
- ④ 동형유언이 상속인을 직접 지정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상속인의 유산을 감소시키는 처분만을 유증(legatum)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는 물권적 유증(legatum per vindicationem)과 채권적 유증(legatum per damnationem)으로 구분되었다.
- ⑤ 카토의 규칙(regula Catoniana)에 따르면,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에 유효하다면 유언장 작성 시에는 무효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문 62.

로마법상 소유권(proprieta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전전(古典前) 법학에서는 소유권을 사회적 구속성이 강한 것으로 보았지만, 용익역권(usus fructus)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 ② 고전법(古典法)은 소유권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소유물반환소권(rei vindicatio)은 점유자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고전전 시대의 이론과 동일하다.

- ③ 고전전 법학에서는 여러 사람의 공유(共有)를 합수(合手)적 관계로 보아,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었다.
- ④ 고전법 학자인 세르비우스(Servius)는 공유를 관념적 지분(pars quota)의 집합으로 보았으나, 공유물 자체의 물리적 분할에 의한 부분 소유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대신관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Q. Mucius Scaevola)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매장된 알려지지 않은 보물(thesaurus)에 대해서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문 63.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2표법 시대에 악취물(res Mancipi)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5명의 증인과 저울잡이 앞에서 동괴(銅塊)로 대가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악취행위(mancipatio)가 필요했다.
- ② 주조 화폐가 사용되면서 악취행위는 실제 측량 대신 동전으로 저울을 치는 상징적 행위로 의례화되었고, 매매 이외에 증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 ③ 고전법(古典法)에서 인도(traditio)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채무변제와 같이 양도의 원인이 정당(iusta causa)할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었다.
- ④ 고전법(古典法)에서 발전한 정당 원인(iusta causa)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는 물권계약만으로 충분하며,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
- ⑤ 고전전 법학에서는 신탁 원칙(fides)에 따라 신탁(fiducia)을 목적으로 한 악취행위가 가능했으며, 이는 채권 담보나 재산 관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문 64.

소유권의 원시취득(原始取得)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고전전(古典前) 법학의 견해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derelictio)된 물건은 즉시 무주물(無主物)이 되어 누구든지 선점(occupatio)을 통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고전법(古典法)에서는 가공(specificatio)의 경우,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가공자의 소유권 취득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 ③ 고전법(古典法)에서는 혼화(confusio)나 부합(accessio)시 주물(主物)이 없는 경우, 가장 가액이 많은 재료의 소유자가 단독소유하였다.
- ④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타인의 토지에서 우연히 발견된 매장물(thesaurus)은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 ⑤ 12표법에 따르면 악취물(res Mancipi)을 무권리자로부터 인도(traditio)받은 선의의 양수인은 즉시 사용취득(usucapio)을 개시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문 65.

로마법상 제한물권(制限物權)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권(servitus)은 어떤 토지(승역지, 承役地)가 다른 토지(요역지, 要役地)의 편익에 봉사하는 권리로, 경작지 지역권은 악취물(res mancipi)에 해당했다.
- ② 로마법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봉사한다(res, non persona, servit)"는 원칙이 확립되어,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인적(人的)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③ 용익역권(ususfructus)은 물건의 본질(substantia)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권리이다.
- ④ 고전전(古典前) 법학에서는, 용익역권의 대상인 여성 노예가 낳은 자식은 과실(fructus)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용익역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 ⑤ 질권(pignus)은 채무 담보를 위한 권리로, 고전법에서는 점유를 수반하는 점유질이 원칙이었으나, 고전전 시대의 전통에서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hypotheca)도 가능했다.

문 66.

로마의 문답계약(stipulati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답계약은 채무의 내용이 되는 약속(spondere)과 책임 부담을 상징하는 행위(stipulari)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계약 형태였다.
- ② 초기의 문답계약은 소비대차(mutuum)와 결합하여 이자 약정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로마 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 ③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문답계약은 만민법(ius gentium)상 계약으로 발전하여, 라틴어 이외에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어 등 다른 언어로도 체결이 가능해졌다.
- ④ 로마법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므로, 문답계약 이외의 비형식적 합의(pactum)도 원칙적으로 소구 가능한 채무를 발생시켰다.
- ⑤ 문답계약은, 계약법정주의(numerus clausus)가 적용되던 로마법에서 법정 계약 이외의 다양한 원인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문 67.

로마 매매계약(emptio venditio)에서의 위험부담과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전전(古典前) 자연법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소유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고전법(古典法)에서는 채무법적 매매 개념이 확립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아닌 평온한 점유(habere licere)를 이전할 의무만을 부담했다.

- ③ 안찰관(aedilis)의 고시(edictum)에 의해 도입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매도인은 모든 하자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졌다.
- ④ 고전법(古典法)에서는 매도인의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매매계약의 본질적 효력으로 인정되어, 매수인은 추탈(evictio) 시 별도의 약정 없이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 ⑤ 고전전(古典前) 후기 법학에서는 신의성실(bona fides)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모르는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문 68.

로마의 조합(societas)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로마법의 조합 형태인 '형제조합(consortium)'은 상속인 공동체에서 유래했으며, 조합원 각자가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해 처분 권한을 가지는 합수(合手)적 성격이 강했다.
- ② 고전전(古典前) 법학에서는 자연법적 신뢰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의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는 전재산조합(societas omnium bonorum)이 인정되었으며, 출자한 재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득과 손실은 항상 동등하게 분배되었다.
- ③ 고전법(古典法)에서는 조합을 이익과 손실의 분배를 규율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파악했으며, 단순히 노무(operae)만을 출자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 ④ 고전법에서 조합원 간의 공유관계는 조합 목적에 기여하는 재산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성립했으며, 조합 재산의 손실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이전되었다.
- ⑤ 고전전 시대의 조합 소송에서 패소한 조합원은 파렴치(infamia) 처분을 받아 시민으로서의 명예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다.

문 69.

아퀼리우스법(lex Aquilia)에 의한 재물손괴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아퀼리우스법 제정 당시, '위법하게(iniuria)'는 오늘날의 과실(culpa)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 과실 책임의 원칙을 확립했다.
- ② 제1조와 제3조는 타인의 노예나 가축, 기타 재물을 죽이거나 손상시킨 경우 손해 발생 직전 1년간의 최고가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 ③ 고전법(古典法)에서는 법률 문언에 따라 직접적, 물리적 가해 행위에 의한 손해만을 아퀼리우스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았고, 간접적인 손해 야기는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 ④ 고전전(古典前) 후기 법학에서는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diligentia)' 개념을 도입하여,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아퀼리우스법상 책임을 인정했다.
- ⑤ 아퀼리우스법 제2조의 규율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문 70.

가부(pater familias)가 그의 권력하에 있는 자(가자, 노예)나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해 지는 위부(委付)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2표법에 따르면, 가부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벌(poena)을 지급할 책임을 졌다.
- ② 가부는 가해자인 자식이나 노예, 동물을 피해자에게 인도(noxae datio)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 ③ 동물에 대한 위부책임은 동물이 본래의 야생성을 발현할 위험을 그것을 이용하는 보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 책임 사상과 관련이 있다.
- ④ 고전 시대에는 포획된 야생동물이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졌다.
- 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는 가자(家子)에 대한 위부 제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폐지되었으나, 노예와 동물에 대한 책임은 존속했다.

문 71.

로마의 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2표법 시대의 법률소송(legis actio)은 정해진 문언을 구두로 정확히 진술해야 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문언을 틀리면 패소할 위험이 있었다.
- ② 법률소송에서 소유물반환 분쟁 시 당사자들은 각각 선서를 하였고, 심판인(iudex)은 누구의 선서가 적법한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판했다.
- ③ 방식서 절차(per formulam)는 정무관(magistratus)이 심판인에게 보내는 소송방식서(formula)라는 서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무관의 명령권(imperium)에 기초한 것이다.
- ④ 소유물반환소송의 방식서는 심판인에게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물건의 가치만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명하는 조건부 금전배상판결을 원칙으로 했다.
- ⑤ 고전법의 통상 소송절차는 법정절차(in iure)와 심판인절차(apud iudicem)으로 구분되는데, 둘 다 법정관(praetor)에 의해 주도되었다.

문 72.

로마 소송법상 대물소권(actio in rem)과 대인소권(actio in personam)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물소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대인소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내용으로 한다.
- ② 대물소권은 특정 채무자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으나, 대인소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③ 고전법상 대물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응소강제(應訴強制)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는 권리를 실현할 수 없었다.
- ④ 대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법정소환에 불응할 경우, 12표법 시대부터 그의 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했다.
- ⑤ 대물소권과 대인소권의 구별은 소유물반환청구(vindicatio) 모델에서 유래한 것으로, 채무에 대한 청구는 인신(人身)에 대한 공취력(manus iniectio)과 구별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문 73.

로마법상 특시명령(interdictu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시명령은 정무관이 발하는 구체적인 폭력금지명령으로서, 현존하는 평화 상태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 ② 초기의 특시명령은 소유물반환청구 모델이 적용되지 않던 공유지(ager publicus)의 사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
- ③ 부동산점유보호 특시명령(interdictum uti possidetis)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폭력, 은비, 허용점유(vi, clam, precario)'로 점유하지 않는 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보호했다.
- ④ 고전법(古典法)에서는 점유 개념이 자주점유(possessio civilis)로 한정됨에 따라, 임차인과 같은 타주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 특시명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 ⑤ 소유물반환소송에서 특시명령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특시명령에서 승소한 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문 74.

12표법에 규정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 30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를 노예로 팔거나 살해할 수 있었다.
- ② 나포(manus iniectio)된 채무자는 60일간 사적인 구금을 당했으며, 이 기간 동안 1번 장날에 시장에 끌려 나와 제3자가 대신 변제할 기회를 가졌다.
- ③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신체를 분할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 ④ 파산한 채무자를 살려둘 경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도시공화국의 두려움이 이러한 잔인한 인적(人的) 책임 제도의 배경이라고 설명된다.
- ⑤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채무노예(nexum)가 될 수 있었으나, 이는 12표법 제정 이후 금지되었다.

문 75.

헬레니즘 시대 이후 로마의 강제집행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기원전 313년 포이텔리우스법(lex Poetelia)은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파는 인적 집행을 완화하여, 채무자는 시민권을 유지한 채 노무를 제공하여 채무를 갚도록 했다.
- 나. 고전전(古典前) 시대 후기부터는 인적 책임 대신 채무자의 전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재산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 다. 채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주는 제도는, 고전전(古典前)의 신뢰 원칙(fides)에 기초한 재정(裁定)절차(arbitria)에서 유래했으며, 심판인은 피고가 "이행할 수 있는 것만큼(in id quod facere potest)"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라. 제정기 황제 칙법의 비상심리절차(cognitio extraordinem)에서 채무자의 개별 재산에 대한 압류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문 76.

12세기 볼로냐에서 법학을 부흥시킨 주석학파(Glossatoren) 법학자들이 연구의 절대적인 권위로 삼았던 법전은 무엇인가?

- ① 함무라비 법전  
②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Corpus Iuris Civilis)  
③ 프랑스 민법전  
④ 독일 민법전  
⑤ 십이표법

문 77.

16세기 법률 인문주의자들(mos gallicus)이 중세 주석학파(mos italicus)를 비판하며 강조했던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 ① 법률의 실용적 적용  
② 법률 개념의 논리적 분석  
③ 원전에 대한 역사적, 문헌학적 탐구  
④ 민족 고유의 관습법 중시  
⑤ 판례의 체계적 정리

문 78.

15세기 말 독일에서 로마법 계수(Rezeption)를 제도적으로 촉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 ① 독일 민법전(BGB)의 편찬  
② 30년 전쟁의 발발  
③ 종교개혁  
④ 제국최고법원(Reichskammergericht)의 설립  
⑤ 대학의 설립

문 79.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연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의 근거를 신학이 아닌 인간의 이성(Vernunft)에서 찾으려 했던 계몽주의 시대의 법 사조는 무엇인가?

- ① 역사법학  
② 개념법학  
③ 이성법학(자연법학)  
④ 법실증주의  
⑤ 자유법론

문 80.

프랑스의 역사적 연구(mos gallicus)와 이탈리아의 실용적 연구(mos italicus)를 종합하여 17세기 유럽 법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국가는 어디인가?

- ① 영국  
② 스페인  
③ 독일  
④ 네덜란드  
⑤ 스웨덴

문 81.

19세기 초 사비니(Savigny)로 대표되는 역사법학파가 법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라고 본 것은 무엇인가?

- 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보편적 이성  
② 국가 입법기관의 명령  
③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민족정신'(Volksgeist)  
④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판사의 지혜  
⑤ 고대 로마 법학자들의 학설

문 82.

다음은 주석학파(Glossatoren)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주석학파의 법학 방법은 근본적으로 후기 고대 학교의 artes liberales 교육, 특히 트리비움(Trivium)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나. 주석학파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rpus Iuris)을 신성한 텍스트, 즉 일종의 법의 계시(Rechtsoffenbarung)로 간주하여 절대적 권위를 부여했다.
- 다. 주석학파는 텍스트 내의 명백한 모순점들을 논리적 구분(distinctiones)과 같은 해석 기술을 통해 조화시키고자 했다.
- 라. 주석학파의 궁극적 목표는 로마법 텍스트를 당대의 실용적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83.

19세기 독일에서 로마법(판덤펜) 원전에서 추출한 법률 개념들을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 했던 법학 사조는 무엇인가?

- ① 이성법
- ② 역사법학
- ③ 개념법학
- ④ 이익법학
- ⑤ 자유법론

문 84.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라고 선언하며, 법의 본질이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이익'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념법학에서 벗어난 법학자는 누구인가?

- ① 사비니 (Savigny)
- ② 푸흐타 (Puchta)
- ③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 ④ 오토 폰 기르케 (Otto von Gierke)
- ⑤ 막스 베버 (Max Weber)

문 85.

1804년에 제정되어 '개인의 소유권', '계약의 자유' 등 근대 시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 세계 민법의 모델이 된 법전은 무엇인가?

- ①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ALR)
- ②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 (ABGB)
- ③ 프랑스 민법전 (Code civil)
- ④ 독일 민법전 (BGB)
- ⑤ 스위스 민법전 (ZGB)

문 86.

1900년 시행된 독일 민법전(BGB)의 제정에 가장 큰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 법학 사조는 무엇인가?

- ① 이성법
- ② 역사법학파의 게르마니스트
- ③ 판덤펜 법학
- ④ 이익법학
- ⑤ 자유법론

문 87.

"법은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관은 법률의 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과 정의 관념에 따라 창조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본 20세기 초의 법 사조는 무엇인가?

- ① 개념법학
- ② 법실증주의
- ③ 순수법학
- ④ 자유법론
- ⑤ 역사법학

문 8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기본법(헌법)이 "독일연방공화국은 사회국가이다"라고 선언한 것(사회국가원리)이 사법(민법)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무엇인가?

- ① 모든 계약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 ②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입법과 판례가 등장했다.
- ③ 모든 사유재산이 폐지되고 국유화되었다.
- ④ 법원의 재판 기능이 행정부로 이전되었다.
- ⑤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문 89.

다음 중 20세기에 들어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게 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노동법, 경제법 등 특별사법의 발달
- ②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거래약관(AGB)의 보편화
- ③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증가
- ④ 개인의 인격권 존중 사상의 발달
- ⑤ 봉건적 신분 제도의 부활

문 90.

12세기 그라티아누스(Gratian)가 편찬한 『그라티아누스 교령집』(Decretum Gratiani)을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법 분야는 무엇인가?

- ① 로마법
- ② 교회법
- ③ 게르만법
- ④ 상법
- ⑤ 자연법

문 91.

2025년도 제1회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법학제요 (Institutiones)
- ② 학설휘찬 (Digesta 또는 Pandectae)
- ③ 정무관 고시 (Edictum)
- ④ 칙법 (Codex)
- ⑤ 신칙법 (Novellae)

문 92.

2025년도 제1회

로마법의 시대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전전(前)시대 후기에는 신의성실(bona fides)이 법률 및 계약해석의 최고원리였다.
- ② 고전법학의 창시기(創始期)에는 신의성실의 원리보다는 개념과 제도적 사고가 강조되었다.
- ③ 고전시대 초기 사비누스(Sabinus) 학파는 대체로 고전전시대 법학을, 프로쿨루스(Proculus)학파는 대체로 고전법학을 계승하였다.
- ④ 고전시대 중기(또는 盛期)까지도 사비누스학파와 프로쿨루스학파는 상대 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⑤ 고전후시대에는 고전시대 법학의 정교함이 상실되어 법학이 쇠퇴하였다.

- 문 93. 2025년도 제1회
- 로마 고전법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권(condictio)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양도(datio)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비채변제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indebiti)
  - ②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급부했으나 반대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데 기한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ob rem)
  - ③ 애초에 급부 원인이 있었으나, 그 원인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 ④ 불법원인급여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ob turpem causam)
  - ⑤ 절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furtiva)

- 문 94. 2025년도 제1회
- 다음 중 로마 고전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계약유형의 자유
  - ② 소유와 점유의 구별
  - ③ 물권변동의 유인주의
  - ④ 물권법정주의
  - ⑤ 물권과 채권의 구별

- 문 95. 2025년도 제1회
- 우리 민법의 법리나 제도 가운데 로마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인의 담보책임  
 ㄴ. 채권자취소권  
 ㄷ. 채권자대위권  
 ㄹ. 불법행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문 96. 2025년도 제1회
- 우리 민법의 다음 제도나 법리 중 게르만법에서 유래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점유보호청구권  
 ㄴ. 점유의 적법권리 추정  
 ㄷ. 위험부담  
 ㄹ. 충유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 ⑤ ㄱ, ㄹ

- 문 97. 2025년도 제1회
- 독일 법학자와 그 이론을 잘못 묶은 것은?
- ① 사비니 (von Savigny) - 법인의제설
  - ② 칼 슈미트 (Carl Schmitt) - 자유법론
  - ③ 벨링 (von Beling) - 3단계 범죄체계론
  - ④ 예링 (von Jhering) - 계약체결상의 과실
  - ⑤ 빈트샤이트 (Windscheid) - 전제이론 (Voraussetzungslehre)

- 문 98. 2025년도 제1회
- 다음 중 중세 주석법학파를 창시한 학자는?
- ① 이르네리우스 (Irnerius)
  - ② 바르톨루스 (Bartolus)
  - ③ 발두스 (Baldus)
  - ④ 아쿠르시우스 (Accurisius)
  - ⑤ 쿠아키우스 (Cuiacius)

- 문 99. 2025년도 제1회
- 중세 이후 로마법을 연구한 학파들의 연구 경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주석학파는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동원하여 주석을 붙였다.
  - ② 주해학파는 로마법의 현실 적용에 힘썼으며, 로마법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주석을 넘어 법의 체계적 정리와 종합을 시도하였다.
  - ③ 인문주의 법학파는 역사적·문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법 텍스트 가운데 수정된 구절(interpolationes)을 찾아 바로 잡고자 하였다.
  - ④ 자연법학파는 17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인간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법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19세기 독일의 역사법학파는 법은 민족정신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유기체처럼 성장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스민법전과 같은 민법전의 편찬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 문 100. 2025년도 제1회
- 18세기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비례성, 고문과 잔혹한 형벌의 폐지, 일반예방론 등 형법 개혁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 학자는?
- ① 베카리아 (Beccaria)
  - ② 포이에르바하 (Feuerbach)
  - ③ 헤겔 (Hegel)
  - ④ 롬브로조 (Lombroso)
  - ⑤ 폰 리스트 (von Liszt)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 참고문헌

베렌츠 저, 정병호 역, 『로마법』, 에피스테메, 2025.

이상영, 김도균 공저,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상영, 이재승 공저,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법학능력검증시험 기초법 예시문항

## 정답표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
| 1        | ②  | 26       | ④  | 51       | ①  | 76       | ②  |
| 2        | ⑤  | 27       | ②  | 52       | ①  | 77       | ③  |
| 3        | ②  | 28       | ③  | 53       | ⑤  | 78       | ④  |
| 4        | ①  | 29       | ④  | 54       | ④  | 79       | ③  |
| 5        | ④  | 30       | ③  | 55       | ②  | 80       | ④  |
| 6        | ③  | 31       | ⑤  | 56       | ④  | 81       | ③  |
| 7        | ⑤  | 32       | ①  | 57       | ②  | 82       | ③  |
| 8        | ⑤  | 33       | ④  | 58       | ④  | 83       | ③  |
| 9        | ②  | 34       | ②  | 59       | ⑤  | 84       | ③  |
| 10       | ④  | 35       | ④  | 60       | ②  | 85       | ③  |
| 11       | ③  | 36       | ④  | 61       | ⑤  | 86       | ③  |
| 12       | ①  | 37       | ④  | 62       | ③  | 87       | ④  |
| 13       | ②  | 38       | ④  | 63       | ④  | 88       | ②  |
| 14       | ④  | 39       | ①  | 64       | ①  | 89       | ⑤  |
| 15       | ④  | 40       | ②  | 65       | ④  | 90       | ②  |
| 16       | ⑤  | 41       | ④  | 66       | ④  | 91       | ③  |
| 17       | ③  | 42       | ④  | 67       | ②  | 92       | ④  |
| 18       | ④  | 43       | ③  | 68       | ④  | 93       | ⑤  |
| 19       | ⑤  | 44       | ④  | 69       | ④  | 94       | ①  |
| 20       | ②  | 45       | ②  | 70       | ④  | 95       | ②  |
| 21       | ①  | 46       | ⑤  | 71       | ⑤  | 96       | ②  |
| 22       | ④  | 47       | ④  | 72       | ⑤  | 97       | ②  |
| 23       | ⑤  | 48       | ③  | 73       | ⑤  | 98       | ①  |
| 24       | ①  | 49       | ③  | 74       | ④  | 99       | ⑤  |
| 25       | ③  | 50       | ②  | 75       | ⑤  | 100      | ①  |